

賀 序

申泰煥 博士가 지난 7月 9日로써 古稀를 맞이하였다. 申泰煥 博士는 韓國經濟學會의 設立을 發想하였고, 그 初代會長에 就任하여 學會가 길이 發展할 수 있는 礎石을 다지었다. 이제 學會는 創立 30週年을 맞고, 學會誌「經濟學研究」도 30週年 特輯號를 내게 되었다. 韓國經濟學會는 이 30輯를 申泰煥 博士의 古稀紀念特輯號로 삼기로 하였다. 다만 가슴에 느끼는 기쁨은 크나 그것을 나타내는 表識이 적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뿐이다.

申泰煥 博士가 京城高等 商業學校에 入學하여 經濟學의 研究를 비롯한 것이 1933年 봄이었으니 50年을 經濟學과 더불어 살아온 셈이다. 그렇다면 經濟學者의 典型的인 人間像을 申泰煥 博士에서 찾아보는 것도 뜻없는 일은 아닌 줄로 믿는다.

申泰煥 博士는 1912年에 韓國近代化의 象徵인 開港場 仁川에서 태어났다. 1912年이라면 仁川이 여러 고장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近代都市의 體貌를 갖추기 始作할 무렵이다. 그런 탓인지 申泰煥 博士로부터 地緣意識을 느낄 수가 없다. 1939年 봄에 東京商科大學을 마쳤으나 名門校로 일관한 學歷을 지니고 있으나 學閥意識도 느낄 수가 없다. 또한 血緣意識도 느낄 수가 없다.

韓國人の 意識과 行動의 底邊을 흐르고 있는 것이 地緣意識・血緣意識・學閥意識이라는 事實이 흔히 指摘되고 있다. 그러나 申泰煥 博士에게서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다. 따라서 韓國人으로서는 드물게 보는 公正한 韓國人이라는 人間像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學者의 側面과 教育者의 側面을 서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한 人物을 보는 基本視線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그러나 學者의 側面만 보일 뿐이고, 教育者의 側面을 볼 수 없는 境遇도 많으며, 教育者의 側面만 보일 뿐이고 學者의 側面을 볼 수 없는 境遇도 많다. 申泰煥 博士처럼 學者의 모습과 教育者의 모습을 고루 찾아볼 수 있는 事例는 그다지 많지 않다.

申泰煥 博士는 일찍부터 延禧專門學校・延禧大學校・東國大學校・서울大學校 등의 教授・學長・總長 등을 歷任하면서 오랫동안 多情한 人間關係를 맺어오고 있는 弟子들을 많이 갖고 있다. 原因이 없는 結果란 이 세상에 없는 법이다. 使命感에

넘치는 講義를 하여 왔기 때문이다.

한 조각의 知識의 傳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人格과 人生觀을 아울러 쏟아내는 講義를 하는 스승에게는 帽子(hat)를 벗을 뿐만 아니라 머리(head)마저 벗으면서 敬意를 표하는 것이 옥스퍼드大學의 氣風이라는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은 일이 있다. 敎育者로서의 申泰煥 博士를 생각할 때마다 옥스퍼드大學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오른다.

셋째로 學者로서 申泰煥 博士가 지녀온 學者의 側面을 보기로 하겠다. 申泰煥 博士는 解放 直後의 언제인가 愛讀書로서 아담·스미드의 國富論과 더불어 1879년에 發刊된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發展과 貧困』(Progress and poverty)과 1877년에 發刊된 모간(Lewis Henry Morgan)의 『古代社會』(Ancient society)를 指摘한 일이 있었다. 經濟學의 研究에 있어 申泰煥 博士가 지니어온 立場을 잘 말하여 주는 指標거리로 볼 수 있다. 그것은 古典의 理解에 力點을 두는 立場이고, 理論·歷史·政策들을 綜合적으로 理解하는 立場이다. 申泰煥 博士가 理論·歷史·政策 등을 專攻하는 어느 部門의 學者와 더불어 知的 雰圍氣를 자아내는 對話와 討論을 나눌 수 있는 廣大한 潜在力은 이러한 經濟學研究의 基本立場에서 빛어지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J.A. 슈페터는 『10大經濟學者』에서 케인즈의 人物評를 쓰고 있다. 그런데 슈페터는 케인즈評傳의 절반 이상을 英國經濟學會誌인 『이코노믹 저널』의 編輯者로서 다 해왔던 役割과 貢獻을 說明하는 일에 바치고 있다. 슈페터는 다음과 같은 斷定을 내리고 있다. 한 學者의 論文은 經濟문제의 한 部分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나 編輯者가 세우는 編輯플랜은 經濟學의 넓은 領域을 앞으로 發展시키는 推進力으로 評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申泰煥 博士는 1971年 9월에 亞細亞經濟研究所를 創設하고 機關誌인 Asian Economics의 編輯責任을 맡고 나섰다. 研究所의 運營에 全面的으로 挑戰하는 姿勢를 보였다. Asian Economics는 43輯에 이르기까지 發刊을 거듭한 나머지 太平洋圈經濟의 研究을 主題로 하는 國際學術誌로서 孤高한 地位를 굳혀가고 있다. 10年 가까운 歲月이 흐르는 동안 적은 研究所 안에 파묻힌 채로 學術誌의 編輯에 專念했던 期間의 申泰煥 博士에게서 資金難 뿐만 아니라 孤獨과 싸우는 學者의 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申泰煥 博士는 이제부터 70歲代의 人生途程에 進入하게 되었다. 마음만은 시들지 말기를 바란다. 李朝國家가 508세의 長壽를 누렸던 勳因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여보기 바란다. 임금은 年少하였으나 國家運營을 두 어깨에 질머진 사람들은 70歲

代の 선비들이였기 때문이다. 이런 事例로 미루어 보더라도 70歲代の 人生에 끊임 없는 使命感을 느끼면서 學究生活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1982年 12月 10日

高 承 濟